

채소·과일값 하룻밤 자고나면 '깡충'

태풍 '곤파스' 직격탄...산지 피해 커 공급물량 비상

추석을 앞두고 채소와 과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올 봄의 냉해와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채소 값이 크게 오른데다 지난 2일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곤파스'가 전국의 채소·과일 산지에 큰 피해를 주면서 공급물량이 급감한 때문이다. 5일 광주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시금

치 1단 가격이 4880원으로 3일 사이 1100원(29.1%)이나 올랐다. 1년 전 1600원이었던 것이 세 배 이상 폭등했다. 대파도 사흘 만에 20.6%가 올라 298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1년 전 이맘 때 1250원에서 238.4%나 급등했다. 산지에서 태풍피해가 컸던 열무와 얼갈이배추 가격도 사흘 만에 각각 16.8%, 13.

1% 오르면서 열무 1단은 3480원, 얼갈이배추는 2580원으로 작년보다 95.5%, 54.5%씩 인상됐다. 추석 대목을 앞둔 과일도 산지 낙과율이 20~30%에 달하면서 가격이 수직상승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1년 전 9개들이 한 봉지에 6980원에 판매됐던 사과 5개로 줄면

서 개 당 615원(79.3%)이 올랐고, 배도 개당 가격이 두 배나 폭등하면서 4개들이 한 봉지(3980원)가 2개로 줄었다. 반입물량까지 줄면서 도매가격도 하루 사이 20~30%씩 상승해 채소 값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3일 광주지역 시금치(4kg) 가격은 6만원으로 하루 사이 1만3000원(27.6%)이나 올랐고, 상추(1/2)도 1만원(20.2%)이 올라 6만원에, 오이(20kg)는 2만원(33.3%) 오른 8만원에 거래됐다. 한달

시금치 1단 4880원
사흘만에 29%나 ↑

새 시금치와 상추는 세 배 이상 폭등했으며 오이도 두 배나 올랐다. 이마트 관계자는 "시금치, 열무, 얼갈이배추의 산지 시세는 최근 5년 간의 최고치"라며 "방해를 입은 상황에서 태풍까지 겹쳐 산지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은 추석을 앞두고 채소와 과일의 산지 시세가 급등하고 물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품질 좋은 상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화병에 담긴 화려한 공작새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예비뉴얼 전시장에서 열린 한국도자기 명품 브랜드 프라운의 '빛으로의 여행' 특별전에 공작새 화병과 접시, 기털을 형상화 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생명보험도 사고 팔 수 있게 되나

전매제도 도입 여부 논란

생명보험을 아파트 분양권처럼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오는 10월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국제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생명보험이 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 전매회사가 신설돼 가입자에

게 불필요한 보험 계약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단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한다. 생명보험을 사들일 때는 사망 시 보험금보다는 낮지만, 중도해약 환급금보다는 높은 가격을 지급해야 한다. 박 의원 측은 "가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쳐 보험을 해약하면 지급했던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해약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지만, 전매제도가 도입되면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생명보험 전매회사가 허용되고 있으며, 보험 가입 즉시 전매할 수 있는 등 전매 관련 규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부정

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인, 환자 등의 목돈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브로커들이 고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헐값에 팔도록 유도하는 행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생명보험 전매업이 생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남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산업이 생긴다는 의미"라며 "보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전매를 둘러싼 부작용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최소화할 방침으로, 미국에서도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입차 판매 연 10만대 시대 눈앞

지난 8월 수입자동차 판매 실적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들어 월별 사상 최대 실적을 다섯번에 걸쳐낸 것이다. 이처럼 국내 수입차 시장이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 연간 판매대수가 올해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8월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가 전월 대비 14.2% 증가한 8758대로 집계됐다. 이는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7월 7666대보다 1000대 이상 많다. 올 들어 수입차 시장은 지난 3월을 시작

으로 4월, 6월, 7월, 8월 등 8번의 실적 발표 중 다섯차례나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8월 등록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2.5% 급증했으며, 올들어 누적대수는 5만837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6674대)보다 59.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한해 동안 수지에 육박한 것으로, 현재 추세로 볼 때 연말이면 10만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수입차 시장이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고, 연말까지 신차 출시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10만대 돌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명절 선물 '금강상품권' 어때요?

제화·골프웨어·신사복·핸드백 등 선택폭 다양

명절 선물로 무엇을 사야 할 지 고민이 된다면 상품권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강제화가 '금강상품권'을 추석 선물로 추천했다. 받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각종 제화부터 골프웨어, 등산복, 신사복 및 핸드백, 각종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선택폭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고급도 핸드백 브랜드 '엔 브루노발리'를 론칭하고, 팀버랜드, 클라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도 매장에 입점해 구매 대상의 선택 폭이 늘어났다. 금강 상품권은 전국 130개 도시 400여 개 매장에서 금강제화, 랜드로바, 레노마, PGA TOUR 및 백화점 매장, 대리점 등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가격대도 5만원부터 7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까지 다양하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중장년층 남성들



의 선물로는 최고급 라인의 헤리티지 리갈 7시리즈가, 부모님에게는 바이오스프 슈즈가 인기"라며 "금액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고 필수 아이템인 지갑과 벨트를 사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성지갑(8만원대)도 추석선물로 제안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금통위 금리결정 주시

IT·자동차株 접근을

이번 주 주식시장은 전 고점의 저항에 부딪히며 물량소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 지수가 1,8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동기와 힘이 필요하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정체 상태에 있는 원인이 미국 경기에서 있다고 볼 때, 당연히 해결의 실마리도 미국 경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느린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이번 주 특별한 지표 발표도 없이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서기까지 상당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해 보인다. 과거 경기침체 시기와 비교해봐도 이번 고용악화의 정도가 심하고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기업들이 꾸준히 이익을 올리면서 현금 창출이 늘고 있으므로 향후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지금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당장 M&A를 통한 몸집 불리기에 현금을 쓰면서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생존과 성장의 전략이 M&A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후행하는 고용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 국내 관심사는 9일 목요일에 금통위의 금리결정과 워드러를 워싱턴(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등 국내의 이벤트가 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결정과 관련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인상한 이후 8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최근 나온 경제지표를 보면, 7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15.5% 증가했고 8월 수출도 전년 대비 29.6% 증가하며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졌다. 국내 경제 성장세가 견고하고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키는 조처를 취해도 시장은 관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한다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8·29 부동산 대책 관련 정책 혼선을 우려한 것인 것인데, 이런 이유라면 금리 동결도 주가에 크게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 1,800선 돌파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더 경기에 확신을 갖고 IT주식을 끌어 담는 움직임이 보여야 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을 기대하기보다 빠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종목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업황 호조가 지속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한 화학업종의 경우 추가 매수는 부담스러워 보인다. IT업종은 하반기 계절적 수요가 뚜렷하게 살아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상승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영역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정부정책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기에 내수부양 수혜주 및 자동차 업종은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박종모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UP 됩니다!
공공 업무용은 부동산 경기, 이럴때는 -
IPALG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이
경제적이고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본사의 외벽방수 전용제품인 **반트**와 **하우징코디**로 건물을 리모델링하시면,
● 특이한 국내 유일의 외벽방수공법이 건물수명을 연장
● 다양한 컬러 마감으로 획기적인 리모델링효과
● 때가 타지 않는 고품격 코팅으로 세척효과 지속
● 세라믹 특수단열소재로 냉난방비 절감 (음선)

● 친환경 & 안벽방수
● 단열 & 리모델링효과

30여가지의 다양한 컬러마감
이외에도 많은 색이 있으며,
친환경 제품은 솔기 색칠과 재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물걸레질만으로도
외벽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건물 시공후
(완공전)

www.IPALG.com 또는 '이파일지.kr'
목포지사 (061) 284-0485 순천지사 (061) 726-0482
여수지사 (061) 683-0485 광양지사 (061) 795-0485

(062) 511-0444, 010.6603.0405

이태리 소파 전문관 오픈
호남유일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

30%
9월29일까지

Bastex 바스텍스 Brianform 브리안폼
MAX DIVANI 맥스디바니 Chateau d'Ax 샤토닥스

세계적인 이태리소파 전문관을 오픈했습니다. 바닥과 등받이가 침대처럼 확장되는 명품소파를 대중적인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식물성 칼라가죽, 뛰어난 복원력.. 일반가구는 홍스페이스 같은 수입원에서 납품받아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30% 이상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신고서 확인)

홍스페이스 이태리가구 전문점
주,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7개층/구도청영)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062-226-7565~7567